

양캠퍼스 하계 농활 실시

오는 27일부터 평택, 순창 일대서 과별로

양캠퍼스 총학생회는 오는 27일부터 각각 순창, 평택군 일대에서 '하계 농촌활동' (이하 농활)을 실시한다.

서울캠퍼스는 작년과 같이 순창군 40여개 지역에서 6월 27일부터 7월 7일까지 10박11일간 농활을 실시할 예정이며, 자체교양 등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지난 1일 제1차 팀장모임'을 가진 총학생회 농민분과는 오는 9, 10일 이틀간을 '열기주간'으로 설정하고 '농촌활동 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 또 오는 18일부터 26일까지 전체교수, 분반·팀별교과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농활기간 동안 총학생회 문화부는 문화교실, 공연, 전시 등을 실시하며, 한의대·치대 등의 이동진료반도 함께 활동을 하게 된다.

김기수(무역·4) 총학생회 연대사업부장은 "농민과 학생이 주체로서 만나고 서로의 영역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이번 농활에서 총학생회는 상반가시업을 통해 학생회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난 봄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반

민자당·반미투쟁으로 확산시켜 나가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수원캠퍼스 총학생회는 오는 6월 27일부터 7월 4일까지 경기도 평택군 일대에서 하계농활을 실시한다.

31일, 임금협약서 조인식

노조비상총회서 투표로 확정

학교당국과 노동조합의 임금교섭이 타결됨으로써 정의발생신고에 따른 대입이 해결됐다.

지난 31일 오후 1시 기획위원회에서 조인식을 가진 '90학년도 임금협약서'는 환경직 3만5천원, 나머지 직종 2만5천원 정액인상과 전 직종, 구성 4.5% 정률인상, 사무직 행정직 1만5천원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처음에 노조측이 제시한 학생지도비와 장기근속수당은 폐지되었으며, 행정직의 경우 학교측의 재량에 따라 인상조절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교측이 제시한 호봉조정은 사무직 일부직급에만 소폭으로 적용됐고, 나머지 전직종에 대해서는 추후 행정부서 개편 및 인사제도개선을 위한

구체화시키는데에 그 의의가 있다. 참가신청은 오는 11일부터 23일까지 단체 학생회, 총학생회 등 소속자치기구에서 접수한다.

한편 농활을 마치고 7월 4일 농활준비위원회를 조직했다.

또한 농활준비위원회 교양소위(송근식소위장)에서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농촌활동대원들을 대상으로 농촌활동준비학교나 준비M.T.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농활 마지막날인 7월 4일에는 참가지역별로 동시다발집회가 있을 예정이다.

학생처 취업종합대책안 마련

지도위원회 구성등 추천의 공정성 도모

서울캠퍼스 학생처는 취업보도종합분석 및 대책안'을 마련하고, 소재자 발간등 구

체적 업무에 들어갔다. 취업정보의 신속한 제공과 취업추진의 정확성을 도모하기 위해 학생처는 △취업단위에 대한 인식 제고 △취업지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강화 △취업정보수집활동, 취업지도 강화 등의 대책을 수립하고 개시한 취업정보실 설치 등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학생처는 중앙, 단체, 과 취업지도위원회를 각각 구성하는 한편 직종별 산학협동 및 연구직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호(학생처 취업복지과) 취업담당은 "취업에 대해 기존에는 졸업예정자들이 개인

적으로 정보를 수집·정리할 수 밖에 없어 취업대책에 문제점이 있었다."며 "앞으로 취업정보 공유와 함께 학생, 교수, 직원 모두의 공동인식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상세한 취업대책 및 세부일정의 수립은 2학기초에 본격화된다고 취업복지과에서 밝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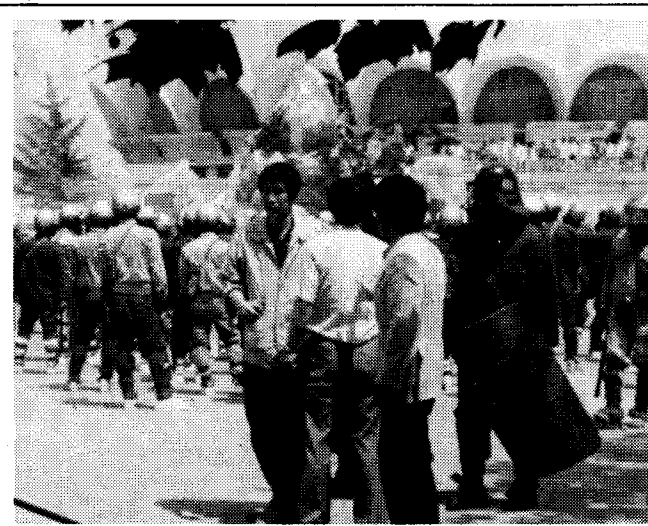
졸준위 취업특강

졸업준비위원회는 졸업예정자를 위한 제1차 취업특강'을 오는 8월 오후 1시부터 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실시한다.

이번 특강에는 '진로방향', 취업정보 수집방법', 채용 및 특채규도', 면접에 임하는 자세' 등 취업에 관한 준비와 전략에 관한 다양한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용성총련 일일찾집

용인·성남지구 총학생회연합회는 오는 6일 성남시소재 대우공업전 문대에서 고 신장오열사 가족후 원기금마련을 위한 일일 찾집을 연다.



우리는 이대로 앉아있을 수 만은 없다

경희의 왕관을 둘러싼 공권력의 뒷모습. 신성한 학문의 전당인 백색헬름의 기고만장한 작태로 오염된 지금, 우리는 결코 이대로 앉아있을수만은 없다. <지난 27일 본교에서 열렸던 전국교사대회'중 전경이 학내에 전입한 상황> <오세운기자>

대학언론·학원탄압 분쇄결의

29일 고대, 2일 한대서 각단위별 연합집회

민자당 정권의 대학언론탄압과 학원탄압이 노골화되고 있는 가운데 각 단위, 매체별 규탄집회를 갖는 등 연대투쟁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대학언론 탄압분쇄와 현정세 돌파를 위한 대학언론인 결의대회'가 지난 29일 4백여명의 각대 학 언론사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고려대 민주광장에서 '북부지구 언론출판협회 대표자회의'(이하 북언협) 주최로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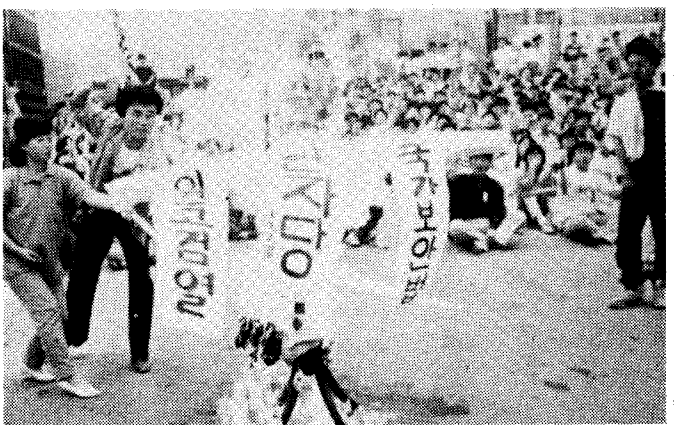
이날 집회에서 고대신문 홍기선 주간교수의 기사삭제등 편집권 침해, 국제대학보의 학교측 일방적 발행중단, 한성대 교직원장 주숙등 일련의 탄압사례보고 및 규탄이 있었다.

또한 북언협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본교부는 대학신문 평가제도 도입, 학교와의 대립을 유도하는 등 직·간접적 탄압을 노골화하고 있다."며 "대학언론탄압과 학원침탈을 자행하는 민자당을 분쇄할 것"을 결의했다.

한편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이하 서총련)은 '세종대 학원민주화투쟁'에 대한 '연대 최고의 날'을 오는 6월 세종대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2일 새벽 전경이 학내로 진입, 농성중이던 학생들을 전원연행하자 곧바로 지난 2일 오후 2시 6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한양대에서 '동부지구 총학생회연합' (이하 동총련) 주최로 '세종학원 침탈규탄 및 학원지주 완전정복을 위한 동부지구청년학생연대대회'를 가졌다.

송기봉(본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 동총련 의장은 "동총련 비상학생투쟁위원회를 결성, 즉각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세종대사태는 지난 1일 총학생회장, 예비역 의장등 1백1명의 학생이 군자관(학생회관)에서 철야농성을 하던 중 새벽 4시 50분 전경, 백골단 5개중대가 진입해 학생들을 전원연행함으로써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 지난 29일 고대 민주광장에서 대학언론탄압분쇄 결의대회'를 가진후 교문앞으로 진출하여 화형식을 갖는 장면

8일 수원 조국통일 학추위 출범식

1천개과 방북 투쟁등 자주적 교류 추진

조국의 평화와 자주적 통일을 위한 제1차 수원캠퍼스 학생추진위원회 건설준비위원회(이하 학추위 건준위)는 오는 8일 공대교육관 앞 통일광장에서 학추위 출범식을 개최한다.

이날 출범하는 학추위는 자주통일 전변화·대중화를 준비하는 의식화·조직화'를 가장 기본적인 사업으로 하고 1천개과 방북 실현, 조국분단의 상징물 콘크리트장벽 제거투쟁, 남북한 UN본부 가립 저지투쟁등의 사업을 전개하게 된다.

전대협차원에서 각 지구별로 조직되고 있는 학추위는 현재 위원장 산하에 정책국·선전국·투쟁

국이 조직되어 있으며 기본구조로 각학과 별 학추위도 조직할 계획이다. 또 오는 6월에는 학추위 건설에 대한 과 학생회장 연설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학추위출범은 지난 89년 광복참가투쟁을 전개해나감에 표출된 대중성부족과 사업의 단절성등을 극복하고 조국통일에 대한 지속적, 대중적 투쟁을 전개해 나간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구체적 사업은 '하계 농촌활동', '여름학교'를 통해 조직을 강화해 나가며 7월 20일부터 27일까지 국민의 자주통일의지를 결집하는 국토순례대행진을 실시한다.

또한 8·15해방절에는 각계 민주 단체와 결합하여 8·15법민족대회를 실시하며 그동안 축적되어온 자주적 교류운동의 성과를 기반으로 10월초에 방북을 계획하고 있다.

오는 11일부터 기말고사 실시

2학기 개강은 8월 20일

양캠퍼스 교무처는 오는 11일부터 21일까지 1학기 기말고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수원캠퍼스사 같은 기간에 실시하는 이번 기말고사 시간표는 오늘 각 단과별로 발표되며, 추가시험신청 및 시험은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된다. 하계방학기간은 오는 22일부터

8월 18일까지이며 2학기 개강일은 8월 20일이다.

또한 후기 학위수여식은 8월 30일 크라운관에서 있을 예정이다. 한편 2학기 수강신청은 서울캠퍼스의 경우 기말고사가 끝나기 전까지 실시되며, 수원캠퍼스는 오는 8일까지 실시된다.

상호이해 부족이 빚은 교심위 개설 '교양과목 폐강'

▼결과가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는 속담이 있지만 과정의 중요성을 전혀 무시해서는 안된다. 좋은 과정이 전제되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건 도박이나 요행수일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여러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일의 경우 좋은 결과는 어느 한쪽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양으로 상호이해와 성실한 노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지난 5월초 서울캠퍼스 교무처에서 조사한 2학기 '개설교양과목 수강희망조사'의 결과를 보면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이하 교심위)가 지난 겨울방학 중 해운 노력이 무색할 정도로 1학기 초에 신설된 과목 대부분이 혼조작자 없어졌다. 교심위의 자체 설

문조사에 따르면 개설교양과목에 수강희망인원이 적은 이유는 우선, 일반학생들에게 교무처 또는 교심위의 신설 교과목에 대한 홍보부족때문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커리큘럼이 다양한 되었을 뿐 내용이 없다는 것도 그 원인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심위는 "신설된 교과목이 최근에 와서 활성화된 진보적 학문영역인데 반해 대부분 고전적인 학문을 전공한 교강사가 많아 내용성을 총괄적으로 담보하지 못한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교심위는 교양과목이 대폭 폐강됨에 따라 교무처에서 조사한 수강신청 희망조사에 이의를 제기하고, 자체적으로 교심위 결의안을 실시, 참조해 개·폐강에 대한 교

심위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학생들의 자율적인 학사행정의 참여가 어떤 이유에서든 벽에 부딪혔다. 이번 수강신청 희망조사의 대상이 주로 1학년인만큼 학점을 잘준다. 친구들이 선택했다...'는 등의 이유로 교과목을 선택한 것을 비난할 수는 없다. 목적과 과정에 있어서 별 다른 하자가 없었던 교심위의 노력이 이처럼 무참한 결과를 빚은 책임은 아무래도 편의위주의 학교행정과 잔치상만 차려놓은 손님들이 몰랐다고 생각하고 교심위의 안이한 태도에 있다고 보아야 하겠다. 즉 각자의 영역에서만 활동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서로 협조하여 좋은 결과를 가져오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1990학년도 후기

경희대학교 각대학원 신입생 모집 요강

경영대학원 (남·여·간)

- 전화 (직)962-9688 (교)961-0127.0128
1. 모집학과 및 과정: 석사, 연구 및 경영학과정
 2. 경영학과(인사관리, 마케팅, 생산관리, 회계학, 재무관리 각 전공)
 3. 세무관리과(세무관리, 세무행정, 조세정책, 조세법학, 각 전공)
 4. 노사인력관리학과(인력자원관리, 노무관리, 인간관계, 노사관계, 노동경제, 노동정책 각 전공)
 5. 관광경영학과(관광자원개발, 호텔경영, 호텔회계, 사업경영, 관광홍보 각 전공)
 6. 산업안전관리학과(산업안전공학, 산업안전관리 각전공)
 7. 무역경영학과(무역경영, 무역정책, 국제경제 각 전공)
 8. 원서교부및접수: 1990년 6월 11일(월)~6월 20일(수) 오후 4시까지
 9. 시험일시및장소: 1990년 6월 23일(토) 오후 2시(본 대학원)
 10. 시험과목: (1)석사과정(영어·면접·경영) (2)연구 및 경영학과정(서류전형 및 면접)
 11. 특전: (1)각종국가고시 최종합격자는 전 이수기간을 통하여 수업료의 50%를 장학금으로 지급함. (2)수석합격자와 각학과 성적우수자에게는 수업료의 30%를 장학금으로 지급함

교육대학원 (일반계 제정제)

- 전화 964-6674 (교)961-0134-6
1. 모집과정 및 학과: 1)교육학석사과정 가. 일반계 모집전공 교육행정, 국민윤리교육, 국어교육, 영어교육, 수학교육, 일반사회교육, 역사교육, 지리교육, 물리교육, 화학교육, 생물교육, 공민교육, 전자계산교육, 음악교육, 미술교육, 체육교육.
 2. 나. 계열모집전공 교육행정, 국어교육, 영어교육, 수학교육, 일반사회교육, 역사교육, 지리교육, 화학교육, 생물교육, 공민교육, 전자계산교육, 농업교육, 음악교육, 미술교육, 체육교육.
 3. 2)연구과정: 석사학위과정에 준함.
 4. 원서교부 및 접수: 1990.6.8~6.18(월)16:00
 5. 시험일시 및 장소: 1990.6.23(토)10:00 (본 대학원)
 6. 시험과목: 1)석사과정:전공, 면접 2)연구과정:서류전형 및 면접
 7. 특전: (1)현직 교직자는 전 이수기간을 통하여 수업료의 20%를 장학금으로 지급하며, 현직교원 및 교육행정 전문직에 종사하는 자는 전형에서 우대함. (2)본 대학원 졸업자는 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입학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단, 동일한 전공 분야이어야함) (3)교육기학 석사학위를 받는 자는 교육공무원법에 의거하여 중등학교 1급 또는 2급 정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음. ※단, 대학에서 전공한 분야와 상이한 전공이 수지는 제외됨.

행정대학원 (간)

- 전화 962-1213 99961-0131
1. 모집과정 및 학과: 가. 석사·연구과정 1)행정학과정책학, 행정관리, 안보정책, 간호행정, 병원행정 2)도시및지역정책학과도시및지역계획, 지방행정, 환경행정, 토지및주택정책 3)사법행정학과; 사법행정 4)사회복지및 보험행정학과; 사회복지, 보험행정
 2. 나. 행정관리과 과정 다. 지방의회지도과과정
 3. 원서 교부 및 접수: 1990년 6월 11일(월)~1990년 6월 20일(수)
 4. 시험일시 및 장소: 1990년 6월 23일(토) 14:00(본 대학원)
 5. 시험과목: 가. 석사과정: 필기시험(행정일반이론 및 각전공 기초분야), 면접 나. 연구과정 행정관리과과정 및 지방의회지도과과정: 서류전형 및 면접
 6. 현역공인, 국가공무원, 각종 고시 1차합격자, 간호사, 본대학 동문은 수업료의 20%장학금으로 지급

평화복지 대학원

- 전화 233-2992, 234-0228, (8346)65-76211-8
1. 모집학과 및 전공: (석사과정, 2년 6개월, 약간명) 평화, 안보학과, 동북아학과, 정책학과, 국제경영학과, 사회복지학과
 2. 입학자격: 국내외 대학(교)의 학사 또는 석사학위를 받은 자와 동등정자로서 최종학력 2년과정 B-학점 이상 취득자
 3. 전형방법: (1)영어시험 및 논문(국문), 단, 88.1.1 이후의 TOEFL성적이 580점 이상인 자는 영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음. (2)1차면접 (1)학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3)2차면접 및 체력검사 (2)학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4. 장학제도: (1)재학중 학비전액 장학금을 지급함. (2)기숙사(삼정서원)숙식에 필요한 숙식장학금을 지급함.
 5. 주지사항: (1)본 대학원은 아시아태평양시대를 맞아 평화지향적인 국제사회의 유능한 지도자양성을 목적으로함, (2)강의는 영어로 함, (3)교수진은 국제 및 국제사회의 저명한 교수로 구성됨, (4)전공과목에 따라 정치학, 행정학, 경영학석사학위를 수여함, (5)전인적 인격도야를 위하여 입학후 4학기간 필히 삼정서원에서 생활하여야 함.
 6. 원서및접수: 접수: (1)기간-1990.6.11~6.19, (2)장소-본 대학원(경기도광릉)
 7. 전형기간 및 장소: (1)시험기간-1990.6.22~6.27, (2)장소-본 대학원

산업정보대학원 (간)

- 전화 (02)745-5702.5889, (1331)8-0101(교 2130.2131).
1. 모집학과 및 인원 (석사과정) 석사과정: 경영정보, 지역개발, 기계공, 전자공, 전자계산, 계측제어, 정보통신, 식품가공, 2.원서교부 및 접수. 1990.6.11(월)~6.25(월), 17시.
 3. 시험일시 및 장소. 1990. 6. 30(토)14시. 본대학원.
 4. 시험과목: 논문(상식), 전공, 면접.
 5. 특전. 농문 및 직업군인, 공무원은 전이수기간을 통하여 수업료의 20%를 장학금으로 지급함.
 6. 본대학원 위치.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서천리 1번지 경희대학교 수원캠퍼스

신문방송대학원 (간)

- 전화 (직)961-0560~1,967-7082
1. 모집과정 및 인원: 석사과정00명 언론연구과정약간명
 2. 모집학과: (1)신문방송학과: 가. 신문전공 나. 방송전공 다. 출판편집전공
 3. 원서교부및접수 1990년 6월 11일~6월 20일(수요일)
 4. 원서교부 및 접수장소 본대학원(체육대학관5층)
 5. 시험일시 및 장소 1990년 6월 23일(토요일)오후 2시 본대학원(체육대학관내)
 6. 시험과목 (1)석사과정:영어·전공·면접 (2)언론연구과정:서류전형및면접
 7. 언론연구과정 (1)고졸이상자 (2)수업기간1년 ※ 대학교재학생으로서 언론계에 진출할 희망자는 언론연구과정에 응시가능함